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연속기도에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전야예배는 24일(화)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이웃에게 나눔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축하예배는 25일(수)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공동체 종무식이 25일(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0일(금)부터 2박3일간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 나눔의 식탁 : 채영학 · 박경희 집사 가정 (감사)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감사)
정혜라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성탄 감사)
임상희 권사 (성탄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51 호

2024년 12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여교역자 안식관을 다녀와서

지난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바로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양평군 용문에 있는 여교역자 안식관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전까지 사랑방에서 계속 지원하던 곳이지만, 지원을 재개하려는 차에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를 채 못 미쳐서 왼쪽으로 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뒤편에 큰 산을 배경으로 여교역자 안식관이 서 있었습니다. 7층 건물로 예상보다 훨씬 규모 있고 잘 단장되어 있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앞서 미리 연락을 드렸던 터라 김영미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분으로부터 여교역자 안식관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관이 시작 된 것은 故주선에 교수님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평생 헌신해 온 여교역자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서 뜻을 세웠고, 이에 공감한 홍순춘 전도사님과 박정득 권사님이 각각 임야와 전답을 기부하며 힘을 보태었으며, 故한경직 목사님과 故이종성 학장님 등 교계 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서, 1986년 준공예배를 드리면서 여교역자들의 쉼터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퇴 여교역자들과 직원 10여명을 포함하여 총 40여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1인 1실의 생활공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 그리고 식사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마다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주일 예배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복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꽤나 넓은 밭이 있는데, 이전에는 함께 작물도 가꾸고 일도 하셨지만 지금은 모두 8.90 고령이 되셔서 따로 밭일을 하시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라, 직원 한 두 분이 맡아서 일부만 간신히 경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하시는 여교역자들께서 방문한 손님들을 매우 환영하여 주셨고,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이 참 밝고 순수해 보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분들이 노후에도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모두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은 양로원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렇게 은퇴 여교역자들께서 서로 의지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 식사 후 간식에 쓰시도록 추수 감사 주일에 모아주신 여러 종류의 과일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식구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현재 이곳의 운영의 많은 부분을 전적인 후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가 분명하기에 안식관의 입소 대상자가 은퇴 여교역자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단과의 관계도 매우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롯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주비를 조금 상향하여서 재정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립 운영을 해 나가는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해서 전 생애를 던져서 헌신하셨던 여교역자들의 참된 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많은 생각이 드는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일어서려고 했는데, 굳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가시라고 권하셔서,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안식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손님을 배려하시느라 배식 순서를 일부러 미루시고, 먼저 음식을 뜨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식단은 아니었지만, 정성담은 반찬들과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돌아왔습니다. 늘 섬김이 앞섰던 분들이라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시는 원장님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며, 한국교회가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잘 돌보는 일에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한주간 말씀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
 <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64, 504 / 504
 기도 :
 성경 : 스가랴 5장
 제목 : 두루마리와 뒤주 환상

1-4 두루마리 환상

해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과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적용: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순종하자.

5-8 뒤주 환상, 뒤주의 내용

해석: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적용: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헤아려 회개하자.

9-11 뒤주 환상, 뒤주의 목적지

해석: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한 바빌로니아는 장차 죄악을 신으로 숭배하게 된다.
 적용: 죄악을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자.

유럽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인사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유럽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인기 있는 명소마다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영업 중입니다. 많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잔치 분위기를 내며 작은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장난감가게, 모자가게 등등.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가게는 역시 먹거리 가게입니다. 그리고 주점도요^^ 주점은 음료 및 맥주 등 다양한 술들을 예쁜 컵에 따라주면 다양한 음식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서서 나눕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놀이기구가 있거나 스케이트장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마켓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여러 장소에서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색다르고 다채롭습니다~ 그곳엔 성당들이 뒷배경이 되어 더욱 웅장함을 자아냅니다.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그곳에선 서로가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연세 높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먹고 마시고 구매합니다~ 분위기가 참 정겹고 따스합니다.

이곳에서 엄마랑 딸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다리 아픈 엄마랑 예쁜 딸이랑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유럽은 어딜 가도 중세 어느 시간 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엔 어딜 가든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듯합니다. 반짝 반짝 트리와 장식들이 고풍스런 건물들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니, 마음이 한껏 즐겁습니다. 여행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나 그 자체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하긴 하지만 멋진 광경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을 놓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강절에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소망을 갖고 다가올 2025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비움사랑방 최연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 |
|----------|------------------|-----|
| 초청의 말씀 | 예레미야 29 : 11-14a | 인도자 |
| * 예배의 찬송 | 8 | 다함께 |
| * 기원의 기도 | | 인도자 |
| * 기원찬송 | 영광 영광 |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 |
|----------|-------------|-----|
| * 참회의 기도 | 히브리서 7 : 27 | 인도자 |
| * 용서의 말씀 | | 다함께 |
| * 신앙고백 | 88, 89 | 다함께 |
| 고백의 찬송 | | 다함께 |
| 공동기도 | | 다함께 |
| 목회기도 | |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 | |
|--------|-------------------------|-------|
| 성경낭독 | 요한복음 1:40-42, 4:25-26 | 설교자 |
| 성가대 찬양 | 오 거룩한 밤 | 비움사랑방 |
| 설교 |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태일 목사 | |

의탁과 섬김의 삶

| | | |
|----------|--------|-----|
| 의탁의 기도 | | 설교자 |
| 응답의 찬송 | 91 | 다함께 |
| * 봉헌기도 | | 인도자 |
| * 영광찬송 | 438(1) | 다함께 |
| * 위탁의 말씀 | | 설교자 |
| * 강복기도 | | 설교자 |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 |
|---------------------------------------|
| 안내 : 허철영 강춘자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
|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

예 배

공동기도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케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는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요1:41>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요4:25>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며, 구주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로인한 포로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말로 외치는 정의, 평화, 기쁨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윤호중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월요일 오후에 자연예배당에서 연극을 보았습니다. 꾸러기 부모님들이 여러날 준비한 연극 브레멘음악대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열연에 꾸러기들은 올해에 본 공연 중 가장 멋진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장난감장과 만들기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종일 쿠키를 만드느라 바빴습니다. 밀대로 밀어준 반죽을 꾸러기들이 모양틀로 잘라내고 장식을 합니다. 아침 모임 끝나고 잠깐, 점심 먹고 잠깐 놀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사람이 많아서 많이 만들었는데 모두들 즐기며 해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포천소방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카드와 전날 만든 쿠키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카드는 되지만 선물은 받기 곤란할 수도 있다하여 어찌나 싫었습니다. 도착해서 꾸러기들이 직접 만든 쿠키라고 했더니 받아주셨습니다. 참 작고 정성만 가득한 선물이어서인가 봅니다.

목요일부터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쭉 자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12월 14일(토)부터 17일(화)까지 나흘 간 학년말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에 대한 면담 시간을 45분 정도로 정하고 있지만 더 길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기도 하고, 한 해를 쭉 돌아보기도 하고, 또 6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 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업 교과에 대한 내용과 예배와 성서일기, 그리고 식사 시간과 봉사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때로는 눈물도 쏟고, 때로는 큰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보폭을 맞추어 보는 시간이 학기말 면담 시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19, 20일(목, 금)에는 6학년 완전체의 1박 2일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6학년들은 출발 장소인 축석휴게소에서부터 그냥 즐겁습니다. 승합차 한 대에 9명의 친구들이 뺨뺨하게 타서도 재밌습니다. 덕산스플라스 워터파크에서 물려다니며 물놀이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밤에는 영화도 보고 이런 저런 게임도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숙소에서 조식을 거하게 먹고, 수원스타필드로 가서 무림리에서 보지 못한 물건들(^0^)을 구경하였지요. 출발할 때 뽑았던 마니또 선물 쇼핑도 하고 별마당도서관에서 책 구경도 하다 보니 포천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 축석휴게소에 다다를 때 쯤 친구들은 어린이 학교에서 9명의 여행이 끝났다는 사실이 새삼 아쉬웠습니다. 이번 여행 추억도 이렇게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다음 단계로 “렛츠 고!” 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왁자지껄했던 모습들이 벌써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 사이 부모님 기말면담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중 5일을 생활했던 멋쟁이들의 모습과 성장한 바를 토대로 대화하는 그 시간은, 참 은혜롭고 감사한 때였습니다. 이번 학기만이 아니라 2024년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이후의 방침과 기대도 나누며 가정과 학교의 사랑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깜짝 놀랄 정도로 훌쩍 자란 멋쟁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증명이라도 하는 걸까요? 이미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여러 방학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방학숙제도 함께 잘 완수하면서, 알찬 연말 보내길 바랍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교사 : 이어진 >

겨울풍경

저녁 6:45. 생활공동체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상차림을 도울까 싶어 식사 전 자연예배당으로 가니 잔잔한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당 앞 쪽 꾸러기학교에서 마련해둔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나무조각상 주변에 작은 불빛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식사자리에 음악이 있으니 정말 만찬에 초대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말소리도 소곤소곤 아이들도 사뿐히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자리에 공동생활식구들이 한 분씩 앉고 그날 식사를 준비한 지체가 기도를 합니다. 맛난 식사를 하면서 근황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의 건강상태도 서로 공유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 학원에 등록한 자녀의 안부를 물으며 본인들께서 면허시험을 치렀던 에피소드를 나누며 한껏 웃기도 합니다. 단순한 식사시간이 아닌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예배당 입구에 걸려있는 대강절 연속 기도회 표를 보면서 오늘은 누가 기도회에 참석하셨나 내일은 누가 참석하시나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벽시간에 대부분 공동생활 식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공동체 가까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하얀 눈이 가득합니다. 많은 눈으로 혹여나 공동체식구들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까, 지킴이를 하러 오실 수 있을까 한~ 걱정을 하며 눈을 치워봅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함께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를 살피고 매일 얼굴을 맞대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 외롭지 않게, 마음이 춥지 않게 오히려 따뜻하고 풍성하게 이 겨울을 납니다. 공동생활식구들의 겨울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120장, 202장

성 경 : 시편 119편 89~96절

말 씬 :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 명분이 무색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행위입니다.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동 각국에 자체적인 질서와 안정을 찾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헤세드 공동체를 위한 기도>

헤세드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귀한 사역이 다음세대로 잘 이어지고 그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대강절연속기도를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3) 어린이학교 국내 졸업여행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 학교가 모두 방학에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평일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일들과 대강절연속기도로 공동생활 식구들은 자자의 자리에서 나름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푸른꿈 겨울공동체생활 식사준비와 눈이 내린 공동체주변을 살피는 일 등 겨울행사와 동파를 신경쓰며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종무식을 지나면 2024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기대하며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전도사>